



인천의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이배영 회장

지난 2017년 6월 5일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제12대 신임협회장에 이배영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이배영 회장은 취임 당시 공약발표를 통해 “우선 인천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존중받는 사회복지사를 만들어 가겠다.” “하모니 하는 협회는 만들겠다.” 라는 세 가지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취임 후 두 달이 지난 지금, 이배영 회장을 만나 인천의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한 활동과 비전, 또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Q. 회장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배영으로 현재는 성산대학교원대학교 효문화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송실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재능대 사회복지과 교수, 호원대 교수를 거쳐 현재는 대학원대학교에서 사회복지와 부모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천과 대학원에서 심리학과를 운영 중이며 이배영심리상담센터도 경영하고 있습니다.

Q. 인천사회복지사협회 활동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인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앞장서서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하여 문제 해결적 자세로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향후 공동지침 개정 및 민주화 노력, 사회복지사 임금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사회복지사들의 의식개혁, 민주복지국가 건설에 앞장서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Q. 인천사회복지사협회 활동 중 회장님의 철학과 비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제 12대 이배영 협회장

세요. 또한, 협회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현장에서 불합리한 처우와 지침이 있다면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고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의 고통과 아픔, 신임을 청취해 함께하는 협회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만 아니라 함께 하는 조직과 동료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협회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들의 의식개혁과 복지국가에 대한 마인드 향상입니다. 깨어있는 사회복지사가 되도록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도록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Q. 사회복지를 실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공동체성 회복과 클라이언트 삼신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사회복지사가 의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자들은 깨어있

는 시대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현상과 과거 하고 깨어 있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지역 주민들에게 한마디.

사회복지 현상이 잘 운영된다면 전담체계인 사회복지사들의 삶이 행복해야 합니다.

저는 인천사회복지사협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장에서 부담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미래 발전을 위해 현장을 찾아다니며 만나고 함께하여 지역사회 속에서 풀뿌리 사회복지가 실현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행복한 봉사 시간 신바람 봉사단

‘신바람 : 신이 나서 우물쭈물하지는 기분’, ‘신바람이 나다’ 등 신바람은 신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기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흥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지역에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남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신바람 봉사단’입니다. 신바람봉사단 김봉호 단장님을 만나 봉사단의 이야기와 단장님의 봉사 정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Q. 단장님과 봉사단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바람봉사단 단장을 맡은 김봉호 단장입니다. 우리 봉사단은 동구에서 20여 년 전부터 지역 봉사대라는 이름으로 봉사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렇게 봉사를 하던 중 약 10년 전 남구로 활동 지역을 옮겼고, 2013년 신바람 봉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신바람봉사단은 저를 비롯하여 봉사단의 이름처럼 신바람 나게 봉사하기 위해 모인 20여 명의 단원이 있습니다. 그중 단장과 여성회장 1명, 고문 2명, 사무국장 1명, 재무국장 1명의 임원진이 구성되어있어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봉사단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경제력 수준이 10위권에 있을 만큼 높은 경제 수준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늘 끼니를 거르시는



주안5동 어르신 위안행사

어르신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등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귀한 대접을 받으시기는커녕 한 끼 식사를 걱정하시는 모습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해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신바람봉사단만의 특징이 있다면?

저희는 봉사단원들의 평균 연령이 60대 정도입니다. 그만큼 저희도 봉사를 받아야 하는 나이가 되었지만, 저희보다 더 연세가 많으시고, 더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저희의 나이는 신경 쓰지 않고 신바람 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바람 봉사단

Q.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지속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현재 어르신들의 세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전쟁과 어려웠던 시대 속에서 미래 세대에겐 조금이라도 나아진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한 그분들에게 저희는 너무나도 보답을 못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현실에 저희가 봉사활동을 시작하였고, 여전히 하는 것은 충효 사상을 바탕으로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어 서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인성교육과 효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마음을 갖게 한다면 저희처럼 신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신바람봉사단의 계획과 지역주민들에게 한마디.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경로당과 힘들고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 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항상 지역주민분들 곁에서 낮은 자세로 봉사할 예정이니, 주민분들은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어르신들이 보인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셔서 저희가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뜻한 나눔가게를 소개 합니다.

- 점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위한 실천에 항상 감사합니다.
- 따뜻한 나눔을 함께 실천하실 분은 032)876-8181로 연락 바랍니다.

흥남면옥



아름다운 왕갈비를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점!

주안5동에 위치한 흥남면옥은 이등갈비와 왕갈비가 맛있다고 소문난 맛집입니다. 고기와 함께 즐기실 수 있는 다양한 밑반찬들 또한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굵은 도라지 무침은 고기랑 함께 먹으면 매콤한 맛이 어우러지며 맛을 고기의 달달한 맛을 더욱 살려줍니다. 물론 도라지무침 이외에도 여러 상식한 채소들과 함께 맛있는 고기쌈을 즐기시는 것 어떨까요?

특히 흥남면옥의 왕갈비는 연하고 부드러움이 일품이는데요, 달달하고 부드러운 갈비를 가족들과 즐거운 외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칠 수 없는 꿀팁! 흥남면옥에서는 갈비포장판매를 30% 할인하는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다는 사실!! 특히 함께 가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선물로 사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약문의: 032)441-1444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 178

돌판향기



신선한 고기와 특별한 돌판을 이용하여 보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맛있는 음식점!

인천 남구 주안 5동에 위치한 돌판향기는 저렴한 가격과 감동적인 맛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음식의 맛을 최대한으로 느낄 수 있도록 손님이 만족하고 나가기 전까지 옆에서 보조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있으니 꼭 한번 찾아가서 먹어보지 않을 수 없겠네요.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메뉴는 바로 두루치기!! 푸짐하고 상식한 야채와 함께 볶아 주시는 두루치기는 간장게장은 명함도 못 내릴 밥도둑이라고 하니 꼭 먹어보세요!!

돌판향기의 특별한 서비스 하나!

고기를 드신 모든 손님에게 잔치국수가 제공된다는 사실!! 식사 후 입가심으로 딱!! 멋진 사장님이 맛있는 고기에 돌판의 품이까지 곁들여주는 돌판향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예약문의: 032)873-8625 ·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2(주안동)

황금오리



수고한 내 몸을 위해 건강한 선물을 줄 수 있는 건강 보양 오리 음식점!

※ 2013 맛있는 집 경연대회 최우수상

인천 남구 주안 5동에 위치한 황금오리는 무더운 한 여름날 우리들의 몸에 건강한 보양식이 될 맛있는 오리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오리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름 보양 음식으로는 능이버섯 오리 백숙이라고 해요.

오리백숙이라고 해서 기름이 많을 것이라 생각은 금물! 일단 드셔보시면 그 감동함에 한 번 더 놀라실 겁니다! 또한 능이버섯은 기관지 · 천식 · 감기 · 산후병 · 클레스테롤 · 산화 · 암 등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에 강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음식입니다. 백숙을 다 드시면 별도의 추가비용이 없는 맛있는 백숙족 한 그릇의 여유까지 즐기고 오시면 됩니다.

☎예약문의: 032) 861-2010 ·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8(주안동)



복지관 소식



방과후교실 여름캠프

- ▶ 일시 : 2017년 8월 8일(화)
- ▶ 장소 : 양평 치즈체험마을
- ▶ 내용 : 피자만들기, 손수건만들기, 물놀이, 야외체험 활동.



'미래를 움직이는 힘 2017 청소년자원봉사학교'

- ▶ 일시 : 2017년 8월 7일(월) ~ 8월 11일(금)
- ▶ 장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 ▶ 내용 : 자원봉사 소양교육, 복지관 및 주변 환경정화 활동



방과후교실 7-8월 생일잔치

- ▶ 일시 : 2017년 8월 17일(목)
- ▶ 장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층 방과후교실
- ▶ 내용 : 남동구, 남구맘카페 떡케이크 후원을 통한 방과후교실 7, 8월 아동 생일잔치 진행



미추홀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돌봄휴식지원사업 '엄마, 아빠도 처음이라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2박3일 가족힐링캠프

- ▶ 일시 : 2017년 8월 17일(목)~8월 19일(토)
- ▶ 장소 : 강원도 속초 장사항 일대
- ▶ 내용 : 장애청소년 가정과 지역 내 성인장애인 가정 50여명을 대상으로 가족문화체험, 하브루타 부모교육, 속초관광, 해수욕,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가족 힐링캠프



미추홀영상팀 간담회

- ▶ 일시 : 2017년 8월 21일(월)
- ▶ 장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3층 3-1
- ▶ 내용 : 동아리 상반기 활동 평가 및 하반기 활동 공지 및 역할 논의



사단법인 미추홀공덕회 소식

종연스님 다음 스토리펀딩 개설안내



<https://storyfunding.kakao.com/project/16864>

행복을 배달하는 '사랑의 반찬'

종연스님은 다음 카카오 스토리펀딩에서 '행복을 배달하는 사랑의 반찬' 프로젝트를 2017년 8월 7일부터 2017.09.25.까지 진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5,000,000원을 목표로 50일간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8월 18일 현재 151명이 후원, 총 모금액 3,302,500원, 달성율66%로 집계되었습니다.

8월 7일 '행복을 배달하는 사랑의 반찬' 프로젝트 소개문과 '행복을 배달하는 사랑의 반찬 1화 : '우리가 외면해버린 아이들' 2화: '우리아웃인데 어쩔 이리 몰랐을까?' 게재되어 소개되었으며, 앞으로 8화까지 계속 게재될 예정입니다.

행복을 배달하는 '사랑의 반찬' 소개

Project by _

About you _ 당신에 대해 말해주세요.

나누는 마음이 깨달음이고, 비울수록 채워지는 행복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자비와 구제의 정신을 구현하는 한 스님과 스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창작자입니다.

Project story _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반찬을 먹지 못하는 소외된 아이들과 독거어르신들에게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생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분한 동행을 함께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Funding plan _ 모인 펀딩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행복을 배달하는 사랑의 반찬'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어린이들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반찬이 전달됩니다.

Details _ 보다 자세하게 당신의 프로젝트를 소개해주세요.

비율수록 채워지는 역설적 행복이 실재합니다.

미추홀공덕회이사장 종연스님은 반찬 그릇에 담았던 것은 반찬이 아니라 사랑과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2004년부터 13년 동안 사비로 반찬을 만들어 소외계층 어린이와 독거 어르신들에게 수천 개의 반찬 나누기를 시작한 종연스님, 그가 이 운동을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연기적 인간관계속에서 맞이한 필연이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시작은 스님이 2004년 고엽제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이 어떻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도움을 드린 것이 복지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외면하고 무슨 깨달음을 얻겠느냐는 생각에 인연 최초 불교복지법인 미추홀공덕회를 설립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복지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사찰 수미정사 소식

경인불교대학 수료 · 졸업식 봉행



8월 13일 일요일 수미정사에서는 경인불교대학 입문반 수료식과 대학반과 경전반의 졸업식이 봉행되었습니다.

전성인 목사나 회장님과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 신호승단장님을 비롯해 많은 신도 분들의 참석으로 여법하게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입문반 수료식에서는 회주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수련생 포교사를 인례자로 하여 수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대학반과 경전반의 졸업식이 진행 되었습니다. 대학반 27기 도해회장님의 송사와 28기 설경과 회장님과 경전반 무병지님의 답사가 이어졌습니다.

축사는 도광 총동문회장, 돈오 신도회장, 신호승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장이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법문을 설해주신 회주스님께서는 증지소지비여경(證智所知非餘境)을 주제로 감로와 같은 법을 내려주셨습니다.

수료와 졸업하신 모든 분을 축하드립니다.

제12회 어르신잔치

매년 가을 수미정사 경내에서 진행되었던 어르신잔치가 올해도 진행됩니다. 주변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음식 대접을 대접하고 미용과 의료봉사 그리고 신명나는 법석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 일 시 : 2017년 9월 16일 (토) / 시간 추후공지

- 장 소 : 수미정사 · 경인불교대학 경내

알짜배기 소식통

8월,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희망키움통장, 월 5만 원 저축도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희망키움통장Ⅰ의 월 적립금이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부담을 느끼는 가입자가 있었는데요, 8월 1일부터 월 5만 원도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 희망키움통장이란? 3년 동안 일정금을 저축하고 매년 교육·사회관리를 각 2회 이상 이수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는 제도 (<http://www.hopegrowing.com>)

출처 | 보건복지부, 2017년 8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정부가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8월 9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 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매해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 희망자를 대상으로, 탈락한 시점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 물려서 못받는 일 사라진다

농촌출신 대학생 대상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재학생도 가능합니다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만 대상이던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8월부터 재학생에게도 확대 시행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올 8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법규사항 발표

8월, 알아두면 쓸데 있는 새로운 정책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 영세·중소가맹점이 확대됩니다

8월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 (연 매출 2억 원 이하 → 3억 원 이하) 및 중소가맹점의 범위(2억~3억 원 → 3억~5억 원)가 확대됩니다.

우대수수료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들에게 연 1천만 원 내외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아산포럼'금융정책 심의결과,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내반입 안 되는 물건들, 이제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인천공항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품 처리율이 8월부터 입수·폐기에서 보관·택배서비스로 크게 개선됩니다.

출국장 안에 마련된 C.타게트물품과 한정특례 전용 접수대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기본입금지불금 버리지 말고 찾아주세요

제주도 우도 들어갈 때 렌터카·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됩니다.

제주시 우도면의 교통체증과 도로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1년 동안, 등록자가 우도면으로 들어 있는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통행이 가능합니다.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등록자가 우도면이 아닌 렌터카와 전세버스
- ✓ 5월 12일 이후, 우도면 지역에 새로 등록된 신규 대여업용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 최고 속력 25km 이하인 이륜자동차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우도 외부차량(이륜차 포함) 우도면 운행 및 통행 제한

보리수 도예 공방을 소개 합니다.

▶보리수 도예공방

•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인원	대상	교육비	일시
도예의 꿈 (아동도예)	최대 20명	6세 ~ 13세	40,000원 (재료비, 소성비 포함)	월요일 17시
도예의 숲 (성인도예)	최대 20명	20세 이상	40,000원 (재료비, 소성비 포함)	수요일 15시

▶ 장 소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수강료 및 이용문의 : ☎032)876-8181

▶ 보리수도예공방카페주소 : <http://cafe.daum.net/qhfltrvhdqkd>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대신 성실한 수업참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내부회의를 통해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관련서류제출)

우리 동네 탐방

15년 전통을 자랑하는 주안 6동 터줏대감 맛집 '흥남면옥'

인천 남구 주안동에는 한 자리에서 15년째 장사를 하는 터줏대감 음식점이 있습니다. 바로 '흥남면옥'이라는 고깃집인데요. '흥남면옥'은 뛰어난 맛으로 오랜 시간 동안 지역주민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받은 사랑을 남몰래 꾸준히 돌려주고 있는 착한 음식점이기도 합니다. 흥남면옥의 박영규 사장님을 만나, 사장님과 음식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Q. '흥남면옥'과 사장님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흥남면옥 사장을 맡고 있는 박영규입니다. 저는 30년 전 인천으로 상경하여 그때부터 음식을 배워 2002년에 이 자리에서 개업한 이후 15년째 한자리에서 지속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안 6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하였고, 현재는 주안 6동 더월드 아파트 입주자대표도 맡고 있을 만큼 지역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Q. '흥남면옥'만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저희 '흥남면옥'은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의 맛을 찾아주는 단골들이 생겼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꾸준히 오랫동안 찾아주시는 한결같은 맛으로 보답 드리기엔 그런 감사한 단골손님들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원래 냉면이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단골손님들은 옛날부터 냉면 맛에 반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왕갈비와 갈비탕도 함께 하여 더욱 많은 손님이 찾아와주십니다.



인천 남구 주안로 178 흥남면옥 예약문의 032) 441-1444



흥남면옥과 함께하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생신잔치

Q. '흥남면옥'과 사장님은 오랫동안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에 지속적인 후원 및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저는 지난 30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 기억에 지금도 어르신들이 저의 조그만 도움에도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삶의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주안 6동에 위치한 경로당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어르신 생신잔치에 음식과 장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안6동 직접자사 회원도 하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직책을 떠나 개개인이 열심히 일하고 일한만큼의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즐거운 취미활동입니다.

Q. 앞으로 계획에 관해 설명해주세요.

주안 6동과 '흥남면옥'은 제 삶의 터전이기에 앞으로도 지역에서 꾸준

히 봉사활동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흥남면옥'은 질 좋은 음식과 최상의 서비스를 꾸준히 손님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이 변하지 않고 활동하여 후에 지역에 많은 봉사활동과 영향을 끼친 저와 '흥남면옥'으로 지역주민들에 기억에 오랫동안 남고 싶습니다.

Q. 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한마디.

제가 주안6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있었을 적엔 여러 가지 축제 및 지역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전체적인 단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되어 조금 더 작은 지역주민들을 세세히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어 보니 주민들 간의 소통하는 모습이 부족한 것이 보이고 그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아파트부터 시작하여 전체적으로 지역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게 노력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이 함께 상생하여 더 좋은 지역으로 발전해 나가는 기회의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주민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함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아름다운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흥남면옥' 또한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함께 상생하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남면옥 박영규 사장님

아이의 꿈을 키워요

I can do it.

아름다운 선율로 영혼을 울리는 피아니스트



8월 I can do it에서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보호센터에 다니는 유소영 학생이 꿈꾸는 '피아니스트'라는 직업을 소개합니다.

피아노는 아름다운 선율이 장점이자 독주용뿐만 아니라 반주용으로도 쓰이는 만능악기입니다. 그런 매력적인 악기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피아니스트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쇼팽과 베토벤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백건우, 조성진, 이무마 등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빛나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지도할 때 아름다운 피아니스트에 대해 배움음악원 김소희 원장님을 만나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남구 주안동에 위치하고 있는 배움음악원 원장 김소희입니다. 음악대학을 졸업 후 바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으며, 10년째 학원을 운영하면서 음악을 통해 아이들이 감수성과 성취감, 그리고 인내심을 기를 수 있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Q. 피아니스트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배우면서부터 피아노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배우는 때 순간이 매우 행복했었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적도 있었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꿈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연습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다. 그러한 노력 덕분에 음



배움음악원 김소희 원장

악 대학을 가서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꿈을 갖고 어릴 적부터 꾸준히 노력하고 공부하여 전문적으로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음악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학에 가더라도 음악을 게을리 하지 않고, 더욱 연습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생기는 대로 피아노 세미나를 꾸준히 찾아 듣는 것도 좋습니다.

Q. 피아니스트로서 보람을 느낄 때와 힘들 때가 있으시다면?

작품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피아노에 계속 앉아 있다 보니 엉덩이가 멍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노력을 통해 한 노래가 제 손에서 완성 되고 또한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며 목이 쉬도록 저의 열정을 쏟을 적에는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친 제자들 역시 본인들만의 작품을 완성시키는 것을 보는 것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Q. 마지막으로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음악은 특정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도 노래를 부르고 또 한 듣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조금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하는 것이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아노를 기술적으로 잘 연주한다면 물론 훌륭한 피아니스트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쇼팽, 베토벤의 어려운 곡들을 연주하는 것 뿐 만이 아닌 쉬운 풍요를 연주하더라도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는 마음으로 연주한다면 그것 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피아니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음악을 향한 진정성을 가지고 즐기며 연주한다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노력과 연습은 절대 우리를 모른 척 하지 않습니다.

동아리 탐방

종이와 먹으로 예술을 표현하는 서예를 즐기는 사람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서예동아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서예동아리 교실

'서예'는 3천년 간 이어온 동양 예술로 동양의 독특한 필기도구인 붓을 사용하여 흰 종이 위에 검정의 먹으로 문자의 조형미를 표현하는 예술 활동입니다. 또한 서예는 거듭되는 연습을 통해 기술적 측면을 넘어서 정신 수양의 수단으로 인정받는 예술이기도 하여 옛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정신수양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는 하였습니다. 그러한 서예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고 또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도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서예동아리가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동아리인 만큼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동아리의 활동 내용이 궁금합니다.

저희 동아리는 회원들이 초보자들도 많고 연령도 높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교재를 가지고 반절까지 14자 정도의 글자를 따라 쓰는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층은 은퇴 후 취미를 갖고 여유로운 활동을 즐기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강사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동아리 활동을 그만 두셨고, 동아리 회원들의 추천으로 제가 현재 강사직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Q. 동아리의 활동 내용이 궁금합니다.

저희 동아리는 회원들이 초보자들도 많고 연령도 높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교재를 가지고 반절까지 14자 정도의 글자를 따라 쓰는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층은 은퇴 후 취미를 갖고 여유로운 활동을 즐기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정택신 기타동아리 강사

Q. 강사님과,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서예동아리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저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동아리 회원이자 강사를 하고 있는 정택신입니다. 저는 인천구치소에서 일하다가 정년 퇴임 후 직장 동료들의 추천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부터 동아

새로운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을 맞이하는 은율탈춤전수교육관

인천 남구 송의동에 위치한 은율탈춤전수교육관은 작년 미추홀 2월호에서 소개되었습니다. 기존 은율탈춤전수교육관은 1983년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워낙 오래전에 지은 탓에 건물이 노후되어 건물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었습니다. 그 후 2015년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 50%를 지원받아 총 19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새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1일 새로운 건물이 지어진 것을 축하하기 위해 은율탈춤전수교육관 개관식이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여 지역주민들을 맞이하는 은율탈춤전수교육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차부회 이사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Q. 은율탈춤전수교육관 이사장님께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보유자이자, (사)은율탈춤보존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차부회입니다. 저희 은율탈춤전수교육관은 1978년 은율탈춤이 중요 무형문화재 제61호로 지정되고 난 후, 인천을 은율탈춤 전승지로 선정하여 평생 교육, 전통 예술의 체험, 지역 예술의 활성화 향상을 위해 1984년 4월 4일 개관하였습니다. 그 후 30년이 지나 건물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국비와 시비 총 19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2016년 재건축을 시행해 17년 6월 11일 정식 개관하여 다시 전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구 수봉안길 78 수봉문화회관 은율탈춤전수교육관



은율탈춤전수교육관 전시실

Q. 리모델링을 통해 달라진 시설에 관해 설명해주세요.

구 전수실에서 더욱 넓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신 전수실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전시실은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다양한 탈들이 전시된 탈 박물관과 찾아오는 지역주민분들이 직접 탈을 제작해 볼 수 있는 탈공방이 생겨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탈공방에서는 가족, 친구 단위에 지역 주민분들이 함께 오셔서 간단한 교육 후 언제든지 탈그리기체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Q. 리모델링 전후 프로그램에 있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전수관 재개 사업으로 '뽕다락 토요 문화학교'와 보존회 보급사업으로 학교에 방문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뽕다락 토요문화학교'는 학생들이 탈춤 속 극적인 요소를 쉽게 접하고 배워 본안탈춤의 생감을 가지고 탈춤을 공연할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됩니다. 또한, 방문교육은 1년에 2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여 개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은율탈춤에 들어있는 우리 일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인천에는 지금도 많은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와 치부회 은율탈춤보존회 이사장을 주제로 하는 축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민이 전통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봉공원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축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은율탈춤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제정된 지 4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은율탈춤에 대해 알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한마디.

우리문화는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은율탈춤을 아끼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인 지역주민들에 홍보 활동과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은율탈춤의 전수활동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장단에 맞춰서 춤 하나 출 수 있게 되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차부회 은율탈춤보존회 이사장

